

# 문헌정보학과 학부 교과과정의 변화

## The Changes in the Curricula of the Department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엄 영 애(Young-Ai Um)\*

### < 목 차 >

- |                  |                 |
|------------------|-----------------|
| I. 서론            | 2. 사회적 요구       |
| II. 문헌정보학 교육의 배경 | IV. 교과과정의 변화    |
| 1. 역사적 배경        | 1. 1960년대의 교과과정 |
| 2. 학문의 정의        | 2. 1980년대의 교과과정 |
| 3. 교과과정          | 3. 2000년대의 교과과정 |
| III. 교육의 변화 요인   | 4. 교과과정의 변화     |
| 1. 정보기술의 발달      | V. 결론           |

### 초 록

본 논문의 목적은 과거 50년동안의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사서직의 교육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문헌정보학 교육의 배경과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1960년대, 1980년대, 그리고 2000년대의 교과과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과거의 교과과정은 문헌조사로 이루어졌고 현재의 교과과정은 각 학과의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였다. 비교의 결과는 교과목명의 수가 두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상당한 변화와 더불어 자료조직을 포함하는 변화가 없는 과목들을 보여준다. 교과과정의 변화는 정보기술의 발달을 반영하고 사회적 요구는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대한 해석과 앞으로의 교육 방향을 제언한다.

키워드: 사서직 교육, 문헌정보학 교육,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race the changes in the curricula of the Department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the past fifty year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education for librarians is supposed to be changed by the influences of the various surroundings, the curricula in the 1960s, 1980s and 2000s of the Departments are analyzed. The past data were collected by literature searches and the present ones on the homepages. It was found out that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along with constancies in the curricula. The results are interpreted and some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Keywords: Education for Librarianship, Education of the Department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urricula of Library Schools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서관학과 교수(yaum@cu.ac.kr)

• 접수일: 2009년 5월 8일 • 최초심사일: 2009년 5월 28일 • 최종심사일: 2009년 6월 22일

## I. 서론

사서직을 배출하기 위한 도서관학과의 종합대학에 설립되어 도서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시작한 후에 반세기가 지났다. 50여년의 세월은 어느 분야든 학문의 기반이 확립되고 전문직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전문직이 봉사하는 분야, 문헌정보학의 경우에 이들이 종사하는 도서관의 업무와 봉사에서 어느 정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도서관학으로 출발해서 문헌정보학으로 학문의 명칭이 바뀌고 도서관 자료의 선택, 분류와 편목, 참고 봉사, 도서관 경영과 서지학을 주축으로 시작된 교과과정은 정보기술의 발달이 가져다 준 정보학 교과목을 통합하였다.

교육, 특히 전문직의 교육은 전문직에 기대되는 사회적 요구와 전문직을 채용하는 기관과 전문직 교육기관이 속해 있는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에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그것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과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전문직의 역할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 근대적 개념의 도서관 봉사가 제대로 정착되고 인식되기 이전에 미국의 사서직 교육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교육의 이론과 내용,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도서관 현장의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아울러 미국의 교육, 특히 교과과정에서 미국의 영향이 계속되었을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50년 동안 사서직을 배출하는 문헌정보학과 학부 교육의 교과과정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의 결과는 교육기관이 사서직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지, 혹은 여전히 미국 교육의 영향을 받는 지를 보여줄 수 있다.

문헌정보학 교육의 배경과 교육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파악한 후에 1960년대의 도서관학과, 1980년대의 도서관학과와 문헌정보학과, 그리고 2000년대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을 분석하였다. 1957년에 도서관학과의 최초로 설립되었고 두 번째로 개설된 것이 1959년이므로 1960년대의 교과과정은 1950년대의 교과과정이 적용되었거나 변경되었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간주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과거의 교과과정은 문헌을 조사하여 파악, 분석하였고 현재의 것들은 각 학과의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1960년대의 교과과정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1)에서, 1980년대의 교과과정은 1989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나온 “도서관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2)에서, 그리고 2000년대의 교과과정은 각 학과의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였다.

1) Young Ai Um, *Library Education in Korea*(Master's thesis, Loughborough Univ., 1983).

2) 엄영애, 노정순, 현영아, *도서관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서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 II. 문헌정보학 교육의 배경

### 1. 역사적 배경

이론 보다는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출발한 듀이의 School of Library Economy 이후, 사서직 교육의 철학적 기반이나 이론의 빈곤은 빈번하게 언급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노력과 연구, 그리고 이론적 기반은 여전히 빈약하다.

미국의 사서직 교육이 우리나라로 도입된 1950년대는 미국의 사서직 교육이 학생들의 입학자격과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의 수준에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대학원 과정으로 정착된 때였다. 다시 말하면 1년 과정인 미국의 대학원 교과과정이 우리나라의 학부과정으로 옮겨진 것이다.

미국의 교육과정은 오랫동안 도서관이 수행해 온 기록자료의 보존과 관리에서 유래한 사서직의 기능, 즉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전문직으로 기록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보존하여 궁극적으로 지식과 자료를 이용자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기록자료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의 사서의 역할에서 자료선택, 분류와 편목, 참고봉사와 도서관의 경영관리의 네 기둥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는 서양의 서지학과 구분되는 동양자료 중심의 서지학이 추가되어 5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이 시작되었다.

주목할 것은 미국에서는 이미 1959년에 지금까지도 정보학의 주요 과목으로 가르쳐지는 정보검색(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을 개설한 것이다.<sup>3)</sup>

1950년대에 출현한 컴퓨터는 1960년대 중반 Borko가 “수학과 시스템 디자인, 그리고 기타 정보처리 개념과 관련된 이론적인 분야로 사서, 논리학자, 언어학자, 엔지니어, 수학자, 행동과학자의 노력과 기술을 포함하는 학제적인 학문”<sup>4)</sup>으로 정의한 정보학을 탄생시켰다.

1960년대부터 미국의 사서직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에 개설되기 시작한 정보학 과목들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0년대에 개설되기 시작하고 그 후에 그 수가 점점 증가하였다. 이 때에 개설된 과목들은 도서관자동화, 정보검색, 색인 및 초록법, 컴퓨터관련 과목들과 컴퓨터 정보처리 등이다.<sup>5)</sup>

학과의 명칭은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나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0년대에 문헌정보학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현재 문헌정보학과가 된 도서관학과의 20개 학과 개설되었다.

3) Patricia G. Reeling and Jana Varlejs, ed., *Education for Library/Information Profession : Strategies for the Mid-1990s*(Jefferson, North Carolina : McFarland, 1993), p.75.

4) W. Boyd Raywar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An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Library History*, Vol.22, No.2(Spring 1985), p.131.

5) 엄영애, “도서관계의 경향과 사서직 교육의 변화,” *도서관학논집* 제26집(1998, 겨울호), p.162.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2호)

1990년대에는 대부분의 학과가 문헌정보학과로 명칭을 바꾸고 교육목표도 사서직 보다는 정보 전문가나 정보전문직의 배출이 선호되었다. 정보학관련 교과목도 1980년대에 전 교과과정의 8.7%를 차지하던 것이 1990년대에는 13.4%로 거의 5% 증가하였다.<sup>6)</sup>

정보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의 도래는 도서관과 사서직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까지 지칭되는 변화는 도서관이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도서관학의 학문과 교육이 전개되던 것이 정보와 이용자 위주로, 사서들이 생각하는 이용자들의 정보요구가 아닌 이용자에 초점을 맞추는 봉사의 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서직에게는 지식과 정보의 수집, 정리, 보존, 이용 및 도서관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확대된 개념인 정보관리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서직의 교육과정도 다양한 분야의 봉사와 더불어 정보사회에서 개인과 조직에게 필요한 정보의 활용능력을 가르치는 정보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도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교과과정의 변화와 확장을 필요로 할 것이다.

## 2. 학문의 정의

19세기 말에 듀이의 School of Library Economy로 사서직 교육을 시작한 후 교육기관들은 School of Librarianship의 명칭을 상당 기간 유지하였다. Librarianship은 학문의 의미 보다는 사서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ALA의 용어집(1983)에 정의된 librarianship의 의미는 “매체에 대한 지식의 적용, 도서관 장서의 구성, 보존, 조직 및 이용과 매체를 통한 정보 유통에 공헌하는 원리, 이론, 기법 및 기술과 관련된 전문직”이다.

필자가 확인한 도서관학(library science)의 가장 오래 전 정의는 1940년대에 ALA 용어집의 “인쇄기록과 필사기록들을 확인, 수집, 조직 및 활용하는 데에 사용되는 지식과 기술”이다.

ALA의 1983년 용어집은 도서관학을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와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록된 정보를 수집, 선택, 조직하고 활용하는 지식과 기술”로 정의하였다. 이 용어집에서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는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1980년대 초까지 이 용어가 보편화되지 않은 것이다. 본 용어집은 정보학(information science)을 “모든 형태의 정보가 생성, 이용, 관리되는 것에 관련된 연구”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에 도서관학과가 설립될 때에는 종합대학이 직업인의 양성보다는 학문의 전당으로 학

6) Young Ai Um,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 the past and the present," in *Transforming Libraries and Educating Librarians : Essays in Memory of Peter Havard-Williams*, ed. by John Feather(London : Taylor Graham, 1997), p.104.

문의 연구와 교육의 목적을 가진 최고 교육기관이기에 학과의 명칭에 대한 별다른 고려와 무리 없이 'science'를 포함하는 도서관학과로 시작되었다.

당시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안내는 도서관학을 “학문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 이용법을 가르치고 가장 효과적인 도서관 운영을 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학문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sup>7)</sup>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용어집의 정의는 대부분 미국이나 영국의 용어집을 번역한 것이기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기대와 다르다.

한국도서관협회가 발간한 문헌정보학 용어사전(1996)은 ‘문헌정보학’을 “‘도서관학’과 ‘정보학’이 융합되어 ‘문헌정보학’이 태어났다. ‘문헌+정보’의 병립적인 합성어가 아니라 ‘문헌정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를 만든 것이다. ‘문헌정보학’은 문헌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현상을 논리적 및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사회적 적용 가능성을 추구하는 학제적인 성격을 띤 독자적인 학문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학문이다. 내용은 정보의 처리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문헌의 수집, 색인(정리, 조직), 이용의 세가지 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용자는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게 되며, 이 결과는 다시 수집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헌정보학의 모든 과정은 마지막 단계인 이용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정의하였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Harrod's Librarians' Glossary*(1995)는 “기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자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에 사용되는 전문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ALA는 최근에 사서직의 자격을 위한 대학원 인가 기준에서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기록정보와 지식, 그리고 이들의 관리와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봉사와 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여기에는 정보와 지식의 생성, 커뮤니케이션, 확인, 선택, 수집, 조직과 기술, 축적과 검색, 보존, 분석, 해석, 평가, 조합, 배포 및 관리를 포함한다.<sup>8)</sup>

도서관학과 정보학의 정의가 결합된 것으로 보여진다. 문헌정보학과들이 정의한 학문의 정의는 근본적인 의미의 차이보다는 표현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과들이 인문대학과 사회과학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학문의 특성상 경계가 불분명할 수도 있고 학제간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없으며 과학이나 공학과의 관련성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모 학

7) 업영애, 전계서, p.161.

8) *2008 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Master's Program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http://www.ala.org/accreditation>> [cited 2009. 3. 30].

과가 “인간의 정보행위 제 현상에 대한 학문으로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학문의 전 분야와 관련된 학문”으로 정의하고 학과의 목적을 “각종 자료의 수집, 정리, 축적, 배포에 관한 이론 및 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전문 분야의 활용 능력 배양”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연세대학교가 정의한 문헌정보학은 “인간의 지적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축적, 검색 및 이들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지식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학문적 기초를 두고 인간의 정보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적 방법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는 학문”이다.

이화대학교는 “문헌이나 정보와 관련된 모든 사실과 현상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사회적 적용 가능성을 추구하는 학제적인 성격을 띠며,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학문”으로 정의한다.

대부분 학과들의 정의를 요약하면 도서관학의 정의에서 사용된 도서나 자료가 정보로 바뀌었고 이들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이용과 관련된 지식이나 이론 혹은 연구라는 근본적인 의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구분되는 정의들은 “어떤 특정 학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에 공통되거나 우선하는 독자적인 체계를 지니고 있는 기초과학인 동시에 종합과학이라 할 수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가장 신속, 정확하게 최적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처리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정보의 발생, 성질, 형태 및 유통 현상에 관한 일반적 원리를 추구하는 순수과학적 측면과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정보유통 시스템의 설계와 운용에 관계된 응용과학적 측면을 공히 포함하고 있는 학문”, “학술 및 전문 정보의 양적 정보 문제의 개인적, 사회적 해결 및 정보요구와 정보수요의 분화라는 질적 정보 문제의 개인적, 사회적 해결을 위한 학문” 및 “도서관을 비롯한 정보센터, 자료실 등의 현장 요구에 따른 지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이론을 연구하고 현장 실습을 통해 기술을 익히는 학문” 등이다.

### 3. 교과과정

교육의 목표는 가르쳐지는 내용 즉 교과과정에 포함되는 과목들의 이수로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교육의 목표가 사서직과 정보 전문직을 배출하는 것이라면 교과과정은 그러한 목표를 근거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고 이들의 기능과 업무가 반영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과과정은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통하여 도서관의 봉사에 필요한 이론과 원칙, 업무의 실행과 가치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Shera는 사서들이 배워야 할 기본 지식으로 기록자료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데에 필요한 선택, 수집, 조직, 분석 및 결과의 평가를 제시하였다. 이외에 조직과 환경 관련 지식,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장비 관련 지식도 사서들에게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sup>9)</sup>

ALA의 인가기준은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을 기록정보와 지식, 그리고 이들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봉사과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정보와 지식의 생성, 커뮤니케이션, 확인, 선택, 수집, 조직과 기술, 축적과 검색, 보존, 분석, 해석, 평가, 조합, 배포 및 관리를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sup>10)</sup>

영국의 정보전문직 단체인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는 교과과정과는 다르지만 정보전문직에게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기술의 핵심이 되는 지식 기반으로 전문지식의 총체(Body of Professional Knowledge(BPK))를 제정하였다. BPK의 핵심개요(Core Schema)는 기본 요소들인 지식, 분류표와 시소러스와 같은 개념적 구조, 도큐멘테이션(데이터의 형태로 매체에 기록된 지식), 정보, 장서/정보원, 이용자/고객과 이 요소들을 연결하는 작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기반이 되는 요소는 개인과 공동의 기억을 공유하는 지식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연결하는 작업들은 지식이 도큐멘테이션이 되는 기록/출판, 도큐멘테이션이 정보가 되는 문헌의 내용 작업(예: 주제 색인), 도큐멘테이션이 장서와 정보원이 되기 위한 큐레이션/정보자원관리, 장서/정보원이 이용자/고객과 연결되는 정보서비스 제공 등이다. 지식과 정보의 관계는 지식이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쳐서 이용자들이나 고객들을 위한 정보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와 이용자/고객의 관계는 정보요구와 이용자 행동에 대한 이해로 강화된다. 이용자/고객과 지식은 개인/공동 기억으로 연결되어있다. 아울러 정보전문직은 윤리, 법, 정책 및 조직과 관련된 쟁점들을 이해해야 하며 정보관리의 지식과 기술 이외에 특정 분야의 지식도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교과과정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2000년대에 IFLA는 1976년에 작성한 “Standards for Library Schools”를 개정하였다.

예전과 달리 오늘 날의 도서관정보교육 프로그램은 실제 장서와 건물로부터만이 아니고 인터넷의 가상세계로 확장된다고 명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보제공을 강조한다.

교과과정의 경우 전문직 교육 이전에 다른 분야의 광범위한 교양 교육을 습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지침서가 제시한 핵심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환경, 정보정책, 윤리, 분야의 역사
2. 정보의 생성, 커뮤니케이션 및 이용
3. 정보요구평가와 요구에 적합한 봉사 설계
4. 정보전달과정

9) Jesse H. Shera, *Foundations of Education for Librarians*(New York : Becker and Hayes, 1972), pp.206-217.

10) *2008 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Master's Program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op. cit.*

11) CILIP 홈페이지 <<http://cilip.org.uk>> [인용 2009. 4. 30].

5. 정보의 조직, 검색 및 보존
6. 정보의 연구, 분석 및 해석
7.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정보 자료와 봉사에 적용
8. 정보 자원과 지식의 관리
9. 정보기관의 관리
10. 정보와 도서관의 결과에 대한 양적, 질적 평가<sup>12)</sup>

아울러 학생들이 배운 이론과 이론의 현장 적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실습이나 인턴으로 가능할 것이다. 위의 핵심과목들은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에 대부분 포함되어야 하고, 나머지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은 학과의 교육 목표와 교육환경, 교수진의 여건에 따라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 Ⅲ. 교육의 변화 요인

도서관학자가 목표로 한 사서직의 배출과 문헌정보학자가 목표로하는 정보전문직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은 이들이 속한 사회적인 환경의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상당히 다를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리고 기술적인 것들 중 어느 하나 도서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이는 사서직의 교육에도 마찬가지이다.

Buckland에 따르면 도서관 업무의 변화는 도서관 가치관과 기술, 그리고 도서관학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도서관 가치관이란 사회가 도서관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는 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서관 정책이나 도서관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회 문화적인 요소로 생각할 수 있다. 기술은 도서관 봉사와 운영 및 관리에 사용되는 처리기술과 도구로 정보기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도서관학은 도서관 봉사에 대한 이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도서관의 본질과 정보봉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론, 원칙, 역사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는 것으로<sup>13)</sup>, 이러한 것들이 교과과정에 다루어질 것이다. 어쨌든 도서관 업무의 변화는 교육, 특히 교과과정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 삶의 모든 면에서 지식과 정보가 불필요한 분야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사서직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요인이 정보

12) <<http://www.ifla.org/VII/s23/bulletin/guidelines.htm>> [cited 2009, 4, 25].

13) Michael Buckland, "Education for Librarianship in the Next Century," *Library Trends*, Vol.34, No.4(Spring 1986), pp.781-783.



를 만들고 배포하고 이용하는 정보기술일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요인과 더불어 사서직의 교육은 도서관을 제도화하여 고유한 역할을 맡긴 사회의 요구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된 적도 없었고, 따라서 상응하는 관심을 끌지 못했던 사서직의 수요와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적 요구가 구체적으로 표출된 도서관의 수와 사서 수의 변화도 사서직 교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 1. 정보기술의 발달

가장 보편적인 정보기술의 정의는 정보의 수집과 보존, 처리, 배포와 이용에 관련된 기술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지식과 정보를 다루어온 도서관과 사서직의 업무와 봉사는 정보기술의 변화와 함께 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정보기술의 역사는 도서관의 역사보다도 길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정보기술이라는 용어의 탄생은 컴퓨터의 보급 이후로 볼 수 있다.

1950년대에 출현한 컴퓨터의 위력은 가히 혁명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탈바꿈을 유도할 정도의 정보기술의 거대한 영향력은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사서직에 다른 분야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할 사실은 컴퓨터, 특히 PC의 출현 이전에도 무수한 정보기술이 존재하여 왔고 정보기술의 발전과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이다. 도서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정보기술은 인쇄술의 발명에서부터 마이크로 사진 및 복사 기술, 각종 시청각 자료의 생산과 활용 등 무수하고 다양하다. 기술 중에는 사용 기간이 긴 것부터 잠시 이용되다가 없어진 것들도 많고 우리나라의 도서관에 소개된 적이 없는 것들도 적지 않다.

정보기술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은 새로운 정보 기술이 만들어낸 자료들을 수집해야하고, 사회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기술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용자들이 원하는 기술과 방법으로 봉사를 하여야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이용 가능성은 도서관에만 국한된 기술 자체가 아니고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도서관이 속한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기술이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기술을 사서직 교육이 얼마나 신속하게 어느 정도로 수용해야 하는 가는 아직 풀지 못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기술이 중요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도구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도서관 업무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고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기술은 컴퓨터로 통신기술과 더불어 도서관 업무 전반, 그리고 이용자들의 도서관과 정보 이용 양상에 걸쳐서 거의 모든 것들을 바꾸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도서관학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주장되는 정보학을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교육이 변화해야 하고 이는 교과과정의 변화를 의미

하는 것이다.

## 2. 사회적 요구

사회가 필요해서 만든 사회조직으로서의 도서관의 기능은 인간이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수용한다. 인간은 기록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이외에 학습과 연구, 문화와 오락 등 인간 활동과 연관된 모든 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인간과 조직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도서관은 인간 삶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여러 관 종들이 생겨났다.

문제는 관 중에 따라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적과 대상 이용자가 다르므로 봉사하는 사서들에게 기대되는 지식과 기술도 구분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문 도서관의 사서들은 이용자들이 필요한 전문분야의 지식이 필요하고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은 일반인들의 교육 수준보다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서 더욱 발달한 정보기술은 보다 다양한 도서관 기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흔히들 말하는 정보사회란 정보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 양의 증가가 가속화되는 사회, 그리고 정보의 중요성과 가치가 확대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만 필요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보를 다루는 도서관과 사서직과 정보 전문직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 요구는 국가가 국민들의 정보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울러 민간 부문의 차원에서 설립하는 도서관의 수와 어느 정도는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바람직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의 대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의 수는 정보 사회의 정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

국가가 개인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공공도서관의 설립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조직과 단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도서관의 보급과 사서의 수가 크게 못 미치지만 우리나라도 꾸준한 성장이 있었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과거의 자료와 자료보존을 중요시하는 도서관이 아닌 다양한 매체와 기술을 겸비한 매우 다른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도서관일 것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정보사회는 정보의 가치가 인정되고 정보가 많이 활용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최근의 미국의 도서관 수와 우리나라의 도서관 수를 미국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약 6배 14)

14) Google에서 확인한 현재의 미국 인구는 약 3억5백만이고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4천8백만이다.

로 계산하고 1/6로 나누어 비교하면 그 비율이 공공 도서관의 수는 2.7 : 1, 대학도서관은 1.2 : 1, 학교도서관은 1.7 : 1, 그리고 특수 및 전문도서관은 1.7 : 1이다.

직원의 경우는 대학도서관이 4.2 : 1, 공공도서관은 3.7 : 1, 학교 도서관의 직원은 5.2 : 1이다. 의외로 전문도서관의 경우는 1.1 : 1에 불과하다.<sup>15)</sup>

도서관과 사서 수의 변화는 사회적 요구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1980년대, 그리고 2000년대의 우리나라 도서관과 사서 수의 변화는 <표 1>에서 볼 수 있다.

<표 1> 도서관과 직원 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특수/전문도서관
	도서관수(직원수)	도서관수(직원수)	도서관수(직원수)	도서관수(직원수)
1965*	49(412)	109(838)	1,422(1,424)	71(472)
1986**	168(2,078)	262(2,844)	4,758(911)	247(1,004)
2007***	564(6,223)	516(3,704)	10,010(3,077)	663(2,270)

\* 한국의 도서관(서울 : 도서관협회, 1965)  
 \*\* 한국도서관통계(서울 : 도서관협회, 1986)  
 \*\*\*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도서관협회, 2007)

도서관 수의 증가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1980년대에 1960년대에 비해서 3.4배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는 1980년대에 비해서 3.4배 증가하였다. 약 40여년 동안 11.5배 증가한 것이다. 대학도서관은 1980년대에 1.4배, 2000년대에 약 2배 증가하였다. 학교도서관의 경우는 3.3배와 2.1배, 그리고 특수 및 전문도서관은 3.5배와 2.7배 증가하였다.

과거 40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도서관종이 공공도서관(11.5배)과 특수/전문도서관(8.6배)이고 앞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도서관도 이들 관 종일 것이다. 직원 수가 증가해야하고 증가될 것으로 볼 수 있는 도서관 종은 학교도서관이다.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도서관 수의 증가에 비해서 사서 수의 증가가 적다. 어쨌든 사서직의 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 IV. 교과과정의 변화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는 교과과정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교과과정은 교육기관의 목표를 달성하는 공식적인 수단으로 교육에 기대되는 결과를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는 학생들과 교육프로그램, 전문직과 교육기관 사이의 계약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sup>16)</sup>

15) <<http://www.ala.org/ala/aboutala/hqops/library/lifraryfactsheet/alalibraryfactsheet2.cfm>> [cited 2009. 4. 20].  
 16) Robert M. Hayes, "Education for the Information Professional : A Library School Perspectives," *Journal of*

1960년대에 사서직의 배출을 목표로 한 학과들은 1980년대에도 사서직의 배출을 목표로 하고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나 정보전문직이라는 용어는 가끔 사용되었다. 2000년대에는 사서직이라는 직명 보다는 정보전문직이라는 용어가 선호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과는 정보전문가 혹은 정보전문직의 배출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가 교과과정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교과과정의 분석은 협의로 과목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서 색인이나 초록은 광의로 자료 조직을 의미하지만 사서직 교육에서는 기계와 컴퓨터를 활용하여 신문 잡지의 기사를 색인하고 초록을 작성하는 기법이 개발되면서 도큐멘테이션이나 정보학의 교과목으로 교과과정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과목들의 중요도가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과목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과목명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칭으로 카테고리를 정하였다.

### 1. 1960년대의 교과과정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960년대의 교과과정은 도서관학 교육이 처음 시작된 1950년대의 교과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1960년대의 학부 과정은 160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이중 80-90학점 정도를 전공과목들이 차지하였다. 연세대학교의 90학점과 이화대학교의 88 학점의 과목들을 분석한 결과 도서관 자료 관련 과목들이 30과목(16.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도서관 조직관리가 21과목(11.8%)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이 일본어와 한자 등의 외국어로 20과목(11.2%)이 개설되었다. 분류와 편목은 19과목(10.7%), 동양서지가 15과목(8.4%), 기초과목인 도서관사가 11과목(6.2%) 개설되었다. 참고봉사가 9과목(5.1%)으로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모든 교과목들이 15개의 과목명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 교과목들의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1960년대 교과목 분포

과목명	과목 수	%
도서선택, 비도서자료, 시청각자료	30	16.9
도서관조직관리/관종별 도서관 운영	21	11.8
일본어/한자	20	11.2
분류, 편목	19	10.7
주제별 서지(인문, 사회, 자연과학)	15	8.4
동양서지(한국, 중국)	15	8.4
도서, 도서관 및 인쇄사	11	6.2
참고봉사	9	5.1
원서 강독	9	5.1

*the American Society of Information Science*, Vol.39, No.5(Sept. 1988), p.314.

도큐멘테이션	6	3.4
독서지도	6	3.4
개론(도서관학, 서지학)	5	2.8
도서관 실습	5	2.8
타이핑	4	2.2
도서관과 사회	3	1.7
전 체	178	100.1

## 2. 1980년대 교과과정

1980년대의 대학교 졸업에 요구되는 이수 학점은 대부분 140학점으로 60학점정도의 전공과목들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전공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졌고 학과 당 평균 30과목을 개설하였다. 24개 대학의 교과과목을 조사해서 확인한 685과목들을 분석하였다. 22개의 과목명으로 나눈 과목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과목들이 자료조직 관련 과목들로 98과목(14.3%) 개설되었다. 그 다음이 도서관 조직경영 분야로 79과목(11.5%) 개설되었고, 자료선택(론)과 더불어 자료와 관련된 과목들이 71과목(10.4%) 개설되었다. 기초분야인 개론이 54과목(7.9%)을 차지하고 일어와 한자가 47과목(6.9%)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봉사는 여전히 28과목(4.1%)으로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없다.

1960년대에 없던 교과목들로 새로 포함된 과목들은 도서관자동화와 전산화, 정보검색, 정보처리 등 소위 정보학 과목들이다. 정보수학, 문서관리, 사무자료관리 및 졸업논문 등 5과목 이하 개설된 13개(1.9%) 과목들은 표에서 제외하였다. 교과목들의 분포는 <표 3>에서 볼 수 있다.

<표 3> 1980년대의 교과목 분포

과목명	과목 수	%
자료조직(분류, 목록)	98	14.3
도서관조직경영/관중별 도서관운영	79	11.5
자료선택(론), 장서구성(론) 장서개발(론) 및 기타 도서관 자료	71	10.4
개론(도서관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54	7.9
일어/한자	47	6.9
주제별서지(주제별 정보, 주제별 문헌)	45	6.6
원서강독	30	4.4
참고업무, 참고봉사 및 정보봉사	28	4.1
동양서지(한국, 중국)	27	3.9
도서관자동화(론)/도서관전산화	25	3.6
정보검색(론, 법)	24	3.5
도서관 도서 및 인쇄사	23	3.4
도서관 실습	18	2.6

정보처리/전산정보처리/도서관정보처리	17	2.5
독서지도	16	2.3
연구방법론	13	1.9
정보(도서관)와 사회/정보사회	12	1.8
색인초록(법), 색인초록작성법	11	1.6
도서관학일반(특강, 비교 도서관학)	11	1.6
정보시스템/시스템분석론	8	1.2
컴퓨터입문/전자계산학입문	8	1.2
타자	7	1.0
기타	13	1.9
전 체	685	100.1

### 3. 2000년대의 교과과정

현재 문헌정보학과의 홈페이지에서 입수할 수 있었던 29개 학과의 교과목 865과목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였지만 과목들의 명칭이 30개로 1960년과 비교해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 과목 이상 개설된 과목들을 포함한다면 그 보다 훨씬 다양하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들이 자료조직으로 100과목(11.6%) 개설되었다. 그 다음이 도서관 경영으로 92과목(10.7%), 장서개발, 자료와 매체관련 과목들이 81과목(9.4%) 차지하였다. 개론이 66과목(6.6%) 차지하고 정보봉사의 비중이 46과목(5.3%)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새롭게 추가된 카테고리는 데이터베이스 관련과목, 디지털 도서관, 네트워크, 정보이용교육 등이다. 1980년대에는 관심을 끌지 못한 기록관리학(론)과 출판, 특히 전자출판, 그리고 저작권 관련 과목들도 각각 27과목(3.1%), 10과목(1.2%), 8과목(0.9%) 개설되었다. 교과목들의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5과목 이상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들은 표에서 제외하였다. 계량정보학, 문헌정보통계, 정보분석평가론, 도서관건축, 정보의 전자상거래등 5과목 이하 개설된 과목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의 수는 전체의 2.8%를 차지하는 24과목이다.

<표 4> 2000년대의 교과목 분포

과목명	과목 수	%
자료조직(분류, 목록)	100	11.6
도서관경영/관종별 도서관운영	92	10.6
장서개발/장서관리/정보매체 및 도서관 자료	81	9.4
개론(문헌정보학, 정보학, 서지학)	66	7.6
정보봉사(론)/정보이용자론	46	5.3
주제별 문헌/주제별 정보/주제별서지	46	5.3
정보검색(론)/온라인정보검색/인터넷정보검색	39	4.5
동양서지/고문헌조직/고서조직/고문헌관리	37	4.3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구축(론)/데이터베이스활용/데이터베이스구축	30	3.5
독서지도론/독서교육론/독서치료	27	3.1
기록관리학(론), 문서관리(론)	27	3.1
디지털 도서관/전자도서관	26	3.0
도서 및 도서관사/정보문화사	25	2.9
도서관, 사서 실습	20	2.3
인터넷정보자원/인터넷정보활용	17	2.0
정보시스템/시스템분석/정보시스템분석론	17	2.0
정보처리(론)/컴퓨터정보처리	17	2.0
한문/일본어/영어	14	1.6
색인초록(론, 법)	14	1.6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12	1.4
정보와 사회/정보사회론	11	1.3
도서관·정보네트워크/학술정보네트워크	11	1.3
출판/전자출판	10	1.2
웹사이트관리/웹설계	9	1.0
문헌정보학일반	9	1.0
원서강독/영서강독	8	0.9
도서관자동화(론)/도서관전산화	8	0.9
저작권(론)/지적재산권	8	0.9
정보이용교육/정보리터러시	7	0.8
정보기술(론)	7	0.8
기타	24	2.8
전 체	865	100.0

#### 4. 교과과정의 변화

1960년대, 1980년대 그리고 2000년대의 교과과정을 비교할 때 가장 큰 변화는 일본어와 한자 및 원서강독의 비율이 1980년대와 2000년대에 급격하게 축소된 것이다. 동양 서지와 도서관사 관련 과목들도 거의 반으로 줄었다. 1960년대에 개설되었던 도큐멘테이션은 1980년대부터 개설되지 않았다. 1980년부터 개설된 과목들은 도서관자동화, 정보검색, 정보처리, 연구방법론, 색인 및 초록 작성법, 정보시스템/시스템분석들로 이들은 2000년대에도 계속 개설되었다. 2000년대에 신설된 교과목들은 데이터베이스, 기록관리, 디지털도서관, 인터넷과 네트워크 관련과목, 출판, 웹사이트, 저작권, 정보이용교육 및 정보기술로 현재 학계와 도서관 현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교과목 분포의 변화는 <표 5>에서 볼 수 있다.

〈표 5〉 교과목의 변화

과목명	196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도서관자료/장서구성/매체	16.9	10.4	9.4
도서관조직경영	11.8	11.5	10.6
일본어/한자	11.2	6.9	1.6
자료조직, 분류, 목록	10.7	14.3	11.6
주제별서지	8.4	6.6	5.3
동양서지	8.4	3.9	4.3
도서 및 도서관사	6.2	3.4	2.9
참고 및 정보봉사	5.1	4.1	5.3
원서강독	5.1	4.4	0.9
도큐멘테이션	3.4	-	-
독서지도	3.4	2.3	3.1
개론	2.8	7.9	7.6
도서관실습	2.8	2.6	2.3
타이핑	2.2	1.0	-
도서관(정보)과 사회	1.7	1.8	1.3
도서관자동화	-	3.6	0.9
정보검색(론)	-	3.5	4.5
정보처리	-	2.5	2.0
연구방법론	-	1.9	1.4
색인 및 초록(법)	-	1.6	1.6
문헌정보학(도서관학)일반	-	1.6	1.0
정보시스템/시스템분석론	-	1.2	2.0
데이터베이스	-	-	3.5
기록 및 문서관리	-	-	3.1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	-	-	3.0
인터넷정보자원/인터넷정보활용	-	-	2.0
네트워크	-	-	1.3
출판/전자출판	-	-	1.0
웹사이트 관련	-	-	1.0
저작권/지적재산권	-	-	0.9
정보이용교육	-	-	0.8
정보기술(론)	-	-	0.8
기타	0	1.9	2.8

## V. 결 론

### 1.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문헌정보학과 학부 교과과정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의 결과는 과거 50년 동안 상당한 변화와 동시에 변하지 않은 사실도 발견되었다.

대학교에서 이수해야하는 이수 학점이 달라짐에 따라 전공 교과목의 이수 학점도 변하였다. 1960년



대에 거의 90학점 취득하던 것이 이제는 45학점으로 학사학위와 2급 정사서 자격 취득이 가능해졌다.

1980년대까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대부분의 학과들이 필수과목을 개설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학부기초와 필수과목으로 이수를 요하는 학과의 수는 극소수이다.

1960년대에는 분석에서 제외된 교과목이 없고 기초, 외국어, 자료, 분류편목, 조직관리 및 참고봉사관련 과목들과 실습 등으로 구성되었다. 타자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했다.

1980년대에 정보학 교과목들의 개설을 볼 수 있다. 1960년대에 없었던 도서관 자동화와 색인·초록법, 정보시스템, 시스템분석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색인·초록은 엄밀한 의미의 자료조직과 같은 의미이지만 자료의 처리에 기계, 후에는 컴퓨터가 활용됨에 따라 정보학 과목으로 구분되었다. 1980년대까지 타자 과목이 개설되었다.

2000년대의 교과목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최소 7과목 이상 개설된 영역들이 30개 영역이고 한 과목 개설된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다양한 과목명들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학점은 감소되고 이수 학점도 감소되었으나 교과목의 과목명들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변하지 않은 사실은 자료조직과 도서관 경영관리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실이다. 특히 자료조직의 경우, 색인과 초록까지 포함하면 다른 과목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으로까지 인정되는 봉사와 이용자 관련 과목들은 아직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용자교육과 정보검색을 포함해도 자료조직이나 경영관리에 미치지 못한다.

교과과정에서 필수과목의 개념이 많이 퇴색되었다. 어느 분야든지 학문의 기본이 되는 핵심과목들이 존재한다. 문헌정보학과도 예외는 아니다. 핵심과목으로 불리우는 장서구성, 자료조직, 조직경영 및 도서관봉사 관련 교과목들은 충분히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과목들은 오히려 지나치게 많이 개설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주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기술 관련 과목들도 충분히 개설되어 있다.

과목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대에 도서선택과 도서관자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1980년대와 2000년대 모두 자료조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도서관 경영관리는 계속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변화를 살펴보면 근본적인 틀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학 관련 과목들이 추가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기술과 정보사회의 현상이 반영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의 추가는 기존 과목들의 축소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감소된 과목이 도서 및 도서관사로 거의 반 이상 줄었다. 동양서지도 축소되는 과목들이고 특히 도서관 자동화는 1980년대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었다. 도서관 자동화의 축소는 도서관 업무가 이미 자동화되어 그 의미가 퇴색된 사실을 의미할 것이다.

1980년대에 없던 과목들로 새롭게 개설된 것들은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디지털 도서관, 인터넷 등 현재의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현재의 정보사회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저작권과 기록관리 관련 교과목들도 현재의 교과과정에서 중시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교과과정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나 정보학 교과목들이 사회적인 요구를 어느 정도로 반영하였는지의 판단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교과목들의 변화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사서의 수요도 많았던 관중으로 볼 수 있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봉사에 필요한 교과목이기 보다는 대학교도서관을 포함하는 전문적인 연구도서관들의 요구에 더 적합한 과목들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수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의 증가를 고려하면 사회적 요구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교과과정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도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미국의 ALA가 인가한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핵심과목들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핵심과목들은 정보자료의 조직, 기초과목, 도서관관리, 정보봉사와 정보원, 연구방법론, 정보검색과 정보에의 접근, 정보기술, 장사개발, 이용자와 정보환경 및 실습이다. 대학원 과정이라 우리의 교육과 교육기관과 수준에 커다란 차이가 있지만 교과목들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명칭들이다. 이들 과목들은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 특히 2000년대의 교과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는 과목들이다. 미국의 교육과정의 특징은 선택과목의 수가 많고 내용이 다양한 것이다. 교육프로그램 당 평균 60과목 이상의 과목들이 개설되어 학생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17)</sup>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에 소수로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교과과정은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 제언

필자가 1980년대에 수행한 한국도서관학 교육의 전망에 대한 연구에서 도서관학과 교수들이 예측한 전망 중에서 교과과정과 관련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학이 도서관학에 통합될 것이다.
2. 도서관 봉사와 관련된 교과목들이 증가될 것이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봉사의 개선과 이용자의 요구와 기대치가 변화하는 데에 대처하기 위한 교과목들이 증가될 것이다.
3. 학생들의 주제 배경에 따른 전문화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sup>18)</sup>

17) Karen Markey, "Current Educational Trends in the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Curriculum,"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 No.4(Fall 2004), p.328.

18) 엄영애, "한국 도서관학 교육의 전망," *도서관학* 제16집(1989. 6), p.47.

미래에 대한 예측은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예견할 것이다.

정보학에 대한 예측은 거의 정확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도서관봉사와 관련된 교과목의 증가와 학생들의 주제 배경에 따른 전문화 교육은 현실과 차이가 있다.

최근 필자의 미국과 영국 정보전문직 교육의 연구에서 밝혀진 최신 경향 중의 하나는 다양한 교과목들을 개설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정보전문직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sup>19)</sup> 물론 대학원 과정으로 주제 배경을 가진 사서들을 양성한다는 전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의 경향이지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Shera도 “만약에 재정적인 제약이 전혀 없이 이상적인 도서관학교를 세울 수 있다면, 우선 건전한 교양교육을 받고 인정한 학문 분야에서 최소한 석사학위나 가능하다면 그 이상의 전공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학생은 입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sup>20)</sup>고 말했다. 이는 사서직을 위한 교과과정들이 교양교육, 주제전공과 도서관정보학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헌정보학과 대부분의 교육 목표는 정보전문직이나 정보전문가, 혹은 전문사서직으로 밝혀졌다. 이제는 문헌정보학과 학부 교육이 모든 관 중이 요구하는 일반 사서직을 배출하는 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정보 사회는 정보의 양과 다양성에 비례해서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도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보기술의 편재로 정보전문가를 자칭할 정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질 수 있다. 이들과 구분되는 정보전문직을 배출하려면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 요구에 적합한 봉사를 제공할 진정한 의미의 사서직에게 요구되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과 학부 교육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사서직 배출, 그리고 대학원의 교육은 대학 및 전문도서관의 사서직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대학원의 교육도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의 정보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부의 전공 교과과정이 지나치게 세분되고 다양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 그 보다는 학생들에게 폭 넓은 교양교육과 가능하면 문헌정보학 이외의 학문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헌정보학과 학부의 교과과정이 포함하는 교과목들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교과목의 내용과 교과과정의 운용일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이 배출하는 사서직이 봉사하는 도서관과 정보기관, 이용자, 지식과 정보, 그리고 사서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봉사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과목들이 개설되고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19) 엄영애, “미국과 영국 정보전문직 교육현황의 비교연구,” p.291.

20) Jesse H. Shera, “The Public Library in Perspective,” in *The Metropolitan Library*, ed. by Ralph W. Connant and Kathleen Molz(Cambridge, Massachusetts : MIT Press, 1972), p.118.

